"광주 대형마트·SSM 과포화"

점포 30개 영업중·6곳은 추가개점 준비

"유통법·상생법 처리돼야 중소상인 보호"

광주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이미 포화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전주연(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 14개, SSM 16개가 영업중이며, 인구 4만7000여명당 1개꼴로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점포 1곳당 인구 수가 10만명 이하면 '밀집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 230곳 중 158곳이 밀집지역으로 대형마트와 SSM가 포화상태였다.

광주의 경우 대형마트가 인구 10만2400여명당 1개꼴로 전국 16개 시·도중 6번째로 많았으며, SSM도 인구 8만9000여명당 1개로 전국 10번째였다.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 포화도는 광주가 전국 9번째로 높았다.

특히 광주 동구와 서구는 대형마트 점포 1개당 인구수가 각각 5만3886명, 7만4956명으로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 각각 상위 8위, 28위를 차지했다.

광주 북구는 대형마트와 SSM 수가 11곳으로 점포 1개당 인구 4만2674명을 차지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이런 상황에도 현재 광주에는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1곳을 비롯해 서구 치평동·풍암동 2곳, 북구 동림동 2곳, 광산구 송정동 1곳 등 5곳에서 SSM 추가개점을 준비하고 있어 대형유통업체 포화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역은 대형마트 15곳, SSM 7곳이 영업중이며 대형유통업체 점포 1개당 인구수는 8만6955명으로 제주(9만3777명)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포화도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한편 대형유통업체가 가장 많은 곳은 부산(112곳)으로 점포 1개당 인구수가 3만1634명이었으며, 대전(44곳·3만3731명), 경남(94곳·3만4576명), 경기(314곳·3만658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대형유통업체가 포화상태이지만 대기업은 우회입점, 가맹점 등 형태로 개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자본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동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미리보는 크리스마스'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29일 '미리보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점등식을 갖고 백화점 주변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연출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저축銀, 1~3등급자에 40% 고리대출

일부 저축은행이 신용 1~3등급 고신용자에게까지 최고 연 40%를 넘나드는 고금리 신용대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저축은행 대출금리 자료에 따르면 62개 신용대출 상품 가운데 최고 신용등급층인 1~3등급자에 대해 2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물리는 저축은행들이 적지 않았다. 통상 은행권의 1~3등급자 신용대출 금리는 7~8%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저신용층인 9~10등급 대출 기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62개 신용대출 상품 중 9~10등급자의 대출금리 정보가 공란으로 돼 있는 경우는 절반인 31개나 된다.

/연합뉴스

"캐피털사 대출금리 한눈에"

오늘부터 비교공시 서비스

고금리 지적을 받아온 캐피털사들의 신용대출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캐피털사의 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를 통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별 취급비중과 금리수준, 평균금리가 캐피털사별로 공개되고, 금리대별로도 5% 구간마다 회사들의 취급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금리 정보는 직전 3개월간 취급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1회 업데이트된다.

/연합뉴스

9월 광공업 생산

광주 '증가' 전남은 '감소'

기계장비·담배·금속가공↑

9월중 광공업 생산은 광주는 증가하고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0년 9월 중 광주·전남 광공업 생산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기계장비(83.4%), 담배(24.9%), 금속가공(18.1%) 등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전달보다 5.0%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은 21.0% 감소했다.

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2%늘었으며, 재고도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 전달 대비 0.4%씩 줄었다. 기계장비(-81.4%), 금속 가공(-42.0%), 식료품(-19.9%) 등이 감소세를 이끌었다.

출하도 금속가공,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반면 상품재고는 1차 금속과 고무 및 플라스틱, 석유정제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나 증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오늘 '한우데이'…할인판매 이벤트

지역 유통업계가 11월 1일 '한우데이'를 맞아 한우를 할인판매하는 이벤트를 연다.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한우데이'는 '한자 소 우(牛)를 파자하면, 1이 세 개가 나온다'는 점을 착안해 전국한우협회 등이 11월 1일로 정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는 11월 1일 하루동안 한우 전품목을 10~30%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한우데이 당일 한우를 30% 할인 판매하고, 이중 삼성카드와 KB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20%를 할인해주는 '반값 한우'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도 1~3일 전국 119개 점포에서 '유명산지 한우 직송전'을 열고 장흥 등 한우 유명 산지 직배송해 DNA 검사를 마친 '홈플러스-농협 안심한우 1~1+등급'을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한우데이 당일 전국 점포에서 한우 전 품목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한우데이와 별도로 4~10일 한우 등심, 불고기, 국거리 등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하는 행사도 연다.

농협도 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의 지역축협 및 농협유통센터 275개소에서 한우고기를 20% 할인 판매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유망 중소형주 저가 매수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2주째 하락했다. G20 경주회담 이후 환율 대립의 원칙적인 절충안을 찾았다는 긍정론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주 예정된 이벤트들의 불확실성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시선을 10월 한 달로 확장시켜도 마찬가지다. 8월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추가 양적 완화 코멘트를 기점으로 펼쳐진, 비달러화 자산의 동반 강세는 변함없지만 그 탄력은 약화되고 있다. 물론, 9월 이후 누적된 상승 피로도가 이러한 탄력 둔화의 일차적인 이유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점차 달러화 및 미국채 수익률에서 그간의 쏠림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 포착되는 점은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투자자들의 경계심과 관망세가 이번 주에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양한 미국발 이벤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달러화 약세를 근간으로 창출되는 해외 유동성과 직결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이다.

당장 코스피가 1.3% 하락한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 3000억원 이상 순매도한 외국인 수급이 부담스러웠고, 지수의 반등을 위해 외국인 매수세의 안정적인 유입 필요성이 높다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 연준이 노리는 양적완화 정책의 목적은 바로 국채 매입을 통한 장기금리의 하락 유도 및 투자 활성화인 바, 설령 양적완화 규모가 예상보다 저조하더라도, 이머징 증시에 유입되는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양적완화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유동성의 반전이다.

또 연준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기의 자생력 획득이라면, 글로벌 유동성도 반전으로 돌변할 가능성은 낮기에 악재로서의 영향력도 제한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두 달 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8조원을 상회한 것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욕구와 관망 심리로 단기 조정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벤트 종료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일부 현금화 전략도 바람직해보인다. 다만 조정을 밸류에이션 매력보유주(기아차, 효성), 유동성 장세 유망주(대림산업, 키움증권), 아시아 소비확대 수혜주(CJ CGV, 엔씨소프트), 유망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